

국토교통부,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
2019.11.14.

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2019년 건축행정 평가’에서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 등 모두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. 건축행정 평가는 「건축법」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및 평가하는 제도로,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. 올해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 부문과 함께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 부문이 추가되었다.

일반 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해 광역지자체 3개, 기초지자체 15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.

일반부문 평가지표

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(15)	건축물 시공·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(25)	건축행정 전문성 (25)	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(35)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출처: 국토교통부, (2019).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는 ‘세종특별자치시’, 11월 14일 보도자료.

이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,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등 국가 건축정책 이해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30여 건에 달하는 지자체 자체노력 사례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. 또 우수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선정되었다.

특별 부문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,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다. 그 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울산광역시,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각각 선정되었다. 먼저 울산광역시는 ‘건축상 수상 작가와 함께하는 건축음악회 – 듣는 건축, 보이는 건축’을 통해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건축문화 조성 및 건축행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, 남원시는 건축 인허가 단계별로 진행내용을 안내하는 ‘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콜(Before Service Call)’을 제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.